

경계 없는 '르네상스 인문학'

월간 **예향** 12월호



특집 'GOOD BYE ~ 2014'

예향초대석 민용태 전 고려대 교수

광주일보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예향' 12월(통권 230)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12월호에는 특집 'GOOD BYE 2014'와 기획 '동학혁명 120주년, 1894년 12월' 등 심층기사와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한해 끝자락에 선 예향 독자들을 위해 준비한 '2014, 나는 이렇게 마무리한다'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억을 한 권의 책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다이어리, 포토 북 만들기 등을 소개했다.

또한 나조가 아름다운 영광 백수 해안도로와 부안 변산 등 가을 만한 송년여행지와 문화인들을 위한 송년 공연·전시 행사 정보도 담았다.

올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지 120년이 되는 해였다. 특히 12월은 전통준이 부하의 밀고로 붙잡혀 혁명의 불꽃이 사들여버린 달이기도 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 동학이 발발했던 현장을 찾아 당시의 정황, 전개과정을 되짚어 보았고, 문학속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준과 동학의 숨결을 들여다보았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개항 117년을 맞은 남도의 대표 항구 목포를 찾았다. 서남해안 시대를 이끌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목포의 현주소를 비롯 해양유물전시관 등 목포의 문화가 집약된 갯바위 공원, 남도 및 일번지로 꼽히는 5미(味) 등 목포의 풍미를 담았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남만논객' 민용태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나 그동안의 근황과 정년퇴직 이후 더 성장한 문학활동을 펼치는 비결을 들었다. '책과 삶'에서는 '비명을 찾아서'의 소설가 복거일 씨를 만나 간암진단을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창작에만 몰두하는 이유와 지나온 인생 이야기 등을 들었다.

이달의 아티스트에서는 퓨류 음악가 임동창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다. 스스로 터득한 '히든 가라' 과 신명을 깨우는 자유의 음악은 독자들에게 남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미켈란젤로 작 'pieta palestrina'

7일 인문지행 무료강좌 '인간의 손, 세상의 경계를 허물다'

미켈란젤로 다비드·피에타 조각상 등 피렌체에서 시작된 인문정신 이야기 해부학·건축... 의사·건축학자 등 강연

지난 11월 광주극장 1·5층에서는 2차례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 인문학 발상지이자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예비 대학생,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이들이 찾아왔다.

이번 강좌는 인문학 공부 모임 '인문지행'(대표 심옥숙)이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 일반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인문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이었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심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는 '인간의 탄생, 그 현장에 스며들다', '인간의 몸, 그 신비에 흠뻑'이었다. 강의에는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인문지행 회원 장근영씨가 함께했다.

강의를 듣는 이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3번째 행사도 마련됐다. 7일 오후 2~4시 열리는 세번째 강좌의 주제는 '인간의 손, 세상의 경계를 허물다-르네상스의 건축과 조각'이다.

특히 세번째 강의는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이 통섭의 인문학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 영역들을 가로지르며 경계를 허물

고 확장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다.

올 여름 피렌체에 머물렀던 심대표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과 '팔레스트리나의 피에타 조각상' 등을 통해 피렌체에서 시작된 인문 정신과 의미를 이야기한다.

르네상스 예술은 의학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의학과 해부학이 르네상스 예술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듣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문지행 회원이자 현직 의사인 김상용씨가 함께 한다.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는 피렌체의 대표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전남대 천득염 교수가 특별 강연 한다. 천교수는 지난 11월 열렸던 첫번째 강의를 들으러 왔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동감, 이번에는 강사로 참여하게 됐다.

2015년에는 피렌체에 이어 로마를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옥숙 대표는 "인문학은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사상을 교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르네상스 건축의 경우 전공자인 천득염 교수를 직접 강의를 진행, 더욱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 강연. 카페(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천득염 교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 향한 '아름다운 시선'

사진동호회 '21·빛모임' 13일까지 담양 명지미술관



김진정 작 '내마음'

사진동호회인 '21·빛모임'(회장 김진정)이 13일까지 담양 명지미술관에서 13번째 정기전을 연다.

'21·빛모임'은 원로 사진 작가인 강봉규 선생에게 사사받은 이들의 모임으로 이번 전시에는 김진정, 양승원, 정태호, 김성민, 배상만, 김명자, 신현정, 박현진, 이현빈, 김현명, 김기식씨 등 회원 11명이 참여해 모두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1·빛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자연을 영감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나무, 돌, 물 등 자연을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형태와 색을 충실하게 담아낸 점이 눈길을 끈다.

회원들은 화면 전체를 반복적인 나뭇잎 패턴으로 채워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기도 하고, 잔잔한 강물에 투영된 단풍으로 울동성을 반영하기도 했다. 화면을 극대화, 또는 극소화 시켜 사진보다는 추상화처럼 보이도록 한 작품도 있고,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회화처럼 담은 작품들도 있다. 문의 061-383-2576. /김경민기자kki@

광주시립미술관 올해 청년 작가는

내년 2월2일까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4'



이정록 작 'Tree of life'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주목한 올해의 청년 작가는 누굴까.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2월2일까지 본관 제1, 2전시실에서 제14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4'를 개최한다.

'빛'전은 그해 국내·외 청년작가 중 작품 활동이 활발하고 창조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45세 미만 작가를 지역별로 선정해 전시한다. 올해는 전국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의 회의를 거쳐 전국 6개 권역에서 이정록(광주·전남), 신도원(·)·최수정(서울·경기)·장용근(대구·경북)·오완석(대전·충청)·서명주(부산·경남)·강주현(강원·제주)씨 등 7명이 초대됐다.

최수정은 다양한 매체로 익살스러운 익명의 얼굴들, 재난, 돌이갈 수 없는 순간의 이미지들을 표현한 '무간'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와 대상 간의 끝없는 영연 회귀적 간격을 보여준다.

'생명의 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이정록은 과거와 현대의 역사를 집 시리즈로 담은 'Stone House'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낙원으로의 귀환 메시지를 담은 'Tree of life in island'를 선보인다.

강주현은 길게 잘린 사진들을 재조합한 입체 조각으로 인간의 삶을 탐색하고, 오완석은 주위의 다양한 오브제를 오

리거나 붙여서 만든 'Case'를 전시한다.

서명주는 국가와 국민, 역사와 현재, 삶과 죽음 그리고 작가와 작품 등 사회 안의 갈등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장용근은 현수막, 간판, 광고지 등 도시에서 본 오브제, 이미지들을 채집하고 촬영해 무감각해진 도시의 모습을 시각화 한다. 신도원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작업한 것을 영상 매체를 통해 새롭게 재편집하는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빛깔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www.geumsoojang.com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 가족모임 | 세미나 |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회식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 시공전 |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